

大河기획/한라산 학술 대탐사(222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56)

자연과 인문이 어우러져 선경을 이루고...

입력 : 2004. 12.03. 00:00:00



▲형제처럼 나란히 서 있는 두 오름, 노꼬메큰오름(사진 오른쪽)과 작은오름/사진=김명선 기자 mskim@hallailbo.co.kr

노꼬메·젯물오름

제주시에서 1100도로를 따라가다 어리목 방향이 아닌 산록도로로 가다보면 장전공동목장이 시야에 들어온다. 노꼬메는 장전공동목장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소길리 목장길을 따라 들어가면 오름에 이른다. 서부관광도로의 경마장 너머로 유난히 뚜렷하게 보이는 오름이 노꼬메다.

노꼬메는 형제오름인데 왼쪽이 작은오름이고 오른쪽은 큰오름이다. 탐사팀은 작은오름을 오른 후 큰오름으로 향하기로 했다. 말이 작은오름이지 이 오름을 오르기 위해서는 웬만한 큰 덩치의 오름을 등반할 때처럼 숨이 턱턱 막힌다.

이 오름은 분화구도 독특하거니와 애월 수산과 하귀리 하구로 이어지는 하천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 분화구에서 시작된 하천의 발원지는 마치 협곡처럼 말굽형으로 터져 있고 양치류 등 식물상도 다양하다.

노꼬메의 어원이 궁금하다. 오문필 탐사위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노꼬메는 노루 ‘장(獐)자를 써서 ‘장악’이라고도 하지만 이 오름의 주변에 ‘노루오름’이 있어 이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한경면 수월봉도 예전에는 ‘노꼬오름’이라고 했는데 이는 ‘고산(高山)’의 의미다. 따라서 노꼬메도 높은 산이란 데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작은오름과 맞닿아 있는 큰오름에 이르면 이런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 노꼬메큰오름의 비고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다. 노꼬메 큰오름의 비고는 234m나 된다.”

노꼬메큰오름에 비해 작은오름은 일반인들에게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큰오름에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분화구를 가로질러 노꼬메작은오름의 정상에 이르면 어승생과 작은두레왓, 큰두레왓, 백록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탐사팀은 그 경관에 넋을 잃어 한참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노꼬메작은오름과 큰오름 사이에는 분지가 형성돼 있다. 분지 주변에는 소나무와 조림된 삼나무가 뺨뺨하다.

이 분지를 지나 노꼬메큰오름에 올랐다. 정상은 조릿대와 역새군락이다. 정차연 탐사위원은 노꼬메오름의 의미를 지질학적으로 분석한다.

“노꼬메큰오름은 분화구가 북서방향으로 트였는데 바로 애월의 광활한 곳자왓이 노꼬메오름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곳자왓지대는 애월읍 하가까지 이어지며 북제주군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애월 곳자왓은 가장 후기에 형성된 지질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부 도로가 개설된 곳을 제외하고는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애월 곳자왓은 분화구에서 11시 방향으로 형성됐으며 경마장이 조성된 곳도 절반 정도는 곳자왓지대였다.”

가파른 경사를 따라 평지에 이르면 노꼬메큰오름은 원추형의 고갯오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오름은 어디에서 보건 전혀 새로운 얼굴로 다가온다.

더덕밭을 지나 이번에는 나즈막한 높이의 ‘젯물오름’을 오르고 나서 이 오름의 어원이 담긴 ‘젯물’에 당도했다. ‘젯물’은 오름 북동쪽에 작은 규모의 암굴인 ‘괘’의 구멍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바로 앞에는 시멘트로 흐르는 물을 받아두고 있는데, 일제때인 소화 12년(1937년)에 시설됐다는 글귀가 남아 있다. 지금도 이 샘물은 주민들에게 약수로 이용되고 있다. 샘물 주변은 소공원으로 단장됐다.

/특별취재반

[전문가 리포트]곳자왓은 언제나 곳자왓이어야

애월읍 유수암리 지경, 제1산록도로변에서 직선거리로 약 350m 지점에 노꼬메큰오름과 노꼬메작은오름이 자리잡고 있다. 두 오름은 북동~남서방향으로 다정하게 자리잡고 있다. 두 오름은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개구(開口)돼 있는 말굽형(북서향) 오름이며, 또한 정상부도 똑같이 남북으로 두 개씩 형성돼 있는 오름이다. 역시 형제다운 모습이다.

노꼬메큰오름은 오름 사면의 2/3 정도가 여러 수종의 나무로 채워져 숲을 이루고 있고, 1/3 정도는 제주조릿대 군락으로 뒤덮여 있다. 특히, 제주조릿대 군락은 오름 사면의 2/3 지점에서부터 무성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유난히 동쪽사면으로 많이 번져 있다. 그리고 조릿대 군락은 어른 키의 허리부분까지 올라올 정도로 왕성한 생육상태를 보이고 있다. 작은오름은 사면 전체가 숲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가시덤불과 함께 잡목림으로 뒤덮여 있다.

노꼬메큰오름의 최고 정상부는 표고 834m, 노꼬메족은오름의 최고 정상부는 774m로 그 차이는 약 60m이다. 멀리 도로 쪽에서 바라보노라면, 충분히 그 높이의 차이를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다. 아울러, 두 오름을 동시에 탐사하고 나서 평지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왜 그다지도 큰오름 쪽이 힘이 들었고, 몸을 움츠리게 했으며, 주위에 신경을 써야 했는지를 납득할 수 있다.

큰오름의 사면 경사는 너무나 급하여 오르기도 힘들지만 내려오기도 힘들다. 가령, 필자처럼 특별한 목적을 띠고 오름을 찾는 사람이라면, 1회 정도의 탐사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든다. 그야말로 노꼬메큰오름은 한번 오르고 나면, 당분간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사라지게 할 정도로 몸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러나 정상에 섰을 때의 상쾌한 기분은 그런 뒷맛을 결코 생각나게 하지 않는다. 노꼬메큰오름 정상에 서면, 주변이 탁트인 시원스런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유난히, 가까운 애월읍 지역의 여러 마을, 초지와 도로 그리고 숲과 오름들이 어우러진 주변경관이 선명하게 다가온다. 자연과 인문환경 요소들이 어우러진 경관은 사람들이 왜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 한가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군데군데 유난히 높게 솟아있는 송전용 철탑이다.

노꼬메큰오름의 북서방향으로는 용암류가 분화구 쪽에서 흘러가면서 만들어놓은 암설류(岩屑流)가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다. 노꼬메큰오름에서 분출한 용암류가 흘러가는 도중에 휴식을 취한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그 모습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느낌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암설류의 분포범위가 꽤나 넓다는 사실이다.

그렇듯 언덕모양의 암설류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키작은 가시덤불과 함께 독특한 식물로 구성된 꽃자왈 지대가 나타난다. 이곳이 말하자면, 애월꽃자왈 지대의 일부이다. 오름 정상에서 보면, 꽃자왈 지대는 주변의 다른 경관과는 쉽게 구별된다. 그만큼 꽃자왈 지대의 하부를 이루는 용암류의 구성상태는 특이하다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런 용암류가 깔린 지대에는 나름대로 그에 부합되는 독특한 식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지역내 언론에서는 꽃자왈 지대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있음을 계속 보도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고 있자니, 노꼬메큰오름에서 보는 꽃자왈 지대는 탐사단에게 무언의 암시를 던져주는 듯 했다. 꽃자왈은 언제나 꽃자왈이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닐는지.

<정광중 탐사위원(제주교대 교수/인문지리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